



2026 VISION

#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 가정

#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 말씀

요즘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공부, 친구 관계, 스마트폰, 게임...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과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전심’, 즉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큰 우레를 발하여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건을 기념하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에도 작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